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

김 동 하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주체혁명 위업이며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선군혁명위업이다.

조선로동당은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혁명적당의 령도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군사를 앞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가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군사를 확고히 앞세우는 령도방식이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군사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혁명적당의 최대의 중대사는 군력강화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중시와 군력강화를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가운데서 군사를 국가의 최고리익, 혁명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최대의 힘을 넣으며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전반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다.

선군혁명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군사에 최대의 힘을 넣는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사업을 복종시킨다는것이며 군사에 최대의 힘을 넣는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가운데서 군사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군사력강화에 나라의 정치, 경제, 사상문화적력량을 비롯한 모든 힘을 집중한다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한다.

우리 당은 군력강화가 혁명의 근본리익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는 관점에서 군사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사업을 군사를 강화하는데 복종시킨다.

군사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해나가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강한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을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원칙적요구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복종시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군사에 모든것을 집중시키고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는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그 해결에서 시기와 단계에 따라 경중이나 선후차를 논할수는 있지만 군사는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다. 군사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서나 중시하고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준비된 혁명력량과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업이다.

군사력강화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군사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시키며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것이라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는것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이다.

선군혁명령도는 군사의 우선적이고도 높은 발전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가운데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전반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령도방식은 군사력을 강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며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추켜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혁명령도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군사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최대의 힘을 넣으며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을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온것은 조선로동당이다.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이 있다.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가 우리 식의 독특한 혁명령도방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령도방식이기 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핵심적인 정치적력량, 주력군을 옳바로 규정하고 내세우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시대가 멀리 전진하고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서는 지난 시기와 같이 로동계급을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갈 수 없다. 오늘의 시대에는 로동계급보다도 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을 혁명의 핵심부대로, 주력군으로 내세워야만 사회주의위업을 옳바로 전진시키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령도방식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인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선군혁명령도이다.

선군혁명령도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기본력량으로,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내세우고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비상히 강화해나간다.

우리 당은 혁명의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혁명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여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전선을 맡고있으며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혁명적각오, 투철한 의지를 지닌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혁명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하여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이다.

선군혁명령도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령도방식이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조국보위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기수로 내세운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수호전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도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전환을 이룩하고 인민생활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와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고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에 의거하여 어렵고 힘든 부문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이다.

오늘 선군혁명령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수령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전위대로,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 바쳐 마련해주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여야 할것이다.